도입: 일상생활 속 사람들이 겪을법한 이야기를 영화적 연출을 통해 2~3분의 영상으로 재구성해 보여준다.

도입 속 주인공 a는 카페 옆 골목길을 걷고 있다. 골목길 한 편에서는 승용차가 빠르게 달려오고 있었으며, 미처 피하지 못한 a는 차와 스쳐 넘어진다. 정신을 차려보니 승용차는 사라진 상황이다. 이 때 a의 눈에 들어오는 카페 외부의 CCTV. a는 카페에 들어가 사장에게 상황을 설명하고, CCTV 열람을 요청한다. 그러나 카페 사장은 카페에 오는 손님들의 모습이 담겨있어 함부로 건네줄 수 없다는 말과 함께 거절한다. 이 때 a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?

전개1: (법 관련 전문가 인터뷰)

법 관련 전문가가 위의 재연드라마를 보고 답한다. 실제로 이러한 경우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활용 가능한 실질적인 방안을 소개해준다.

<인터뷰 질문>
1. 해당 영상과 같은 경우 피해자가 CCTV 영상을 증거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?
2.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한 모자이크, 비용과 방법은?

전개2: (예외 상황에 대하여)

다른 재연드라마로 다시 넘어간다. 카페 안 주인공 a와 카페 사장은 함께 일을 하고 있다. 카페 사장은 먼저 퇴근을 한다며 나머지 일을 a에게 맡기고 자리를 떠난다. 다음날 출근부터 시재금이 조금씩 맞지 않고 가게 내 재고도 맞지 않는 것을 확인한 카페 사장은 이를 의아하게 생각한다. 카페 사장은 불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법 CCTV를 통해 알바생을 지켜보게 된다. 그 결과 실제로 알바생이 재고와 돈을 일부 빼돌리는 것을 목격한다.

절정: 최근의 예외 판례까지

이에 대한 내용은 영상 시청 후에 똑같이 변호사님이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한다.

<인터뷰 질문>
1. 전개 2의 상황과 같이 CCTV가 불법적으로 설치되었다면 사건의 유일한 단서여도 증거로 활용될 수 없는건지?
2. CCTV 설치 조건은 법에 따로 명시가 되어 있는지?
3. CCTV가 불법적이었음에도 증거로 채택되었던 최근의 사례 하나만 소개해주실 수 있는지?
4. 그렇다면 개인이 방법용으로 CCTV를 다는 경우에도 제약을 받을 수 있는지?

결말: 예외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 좋은 CCTV 활용법에 대해 소개하며 마무리 한다.
> 변호사님 의견 토대로 다시 내용 바뀔 예정